2026 - 7호
(2026. 10월 셋째주)

정책동향

- 국정 동향
- 시정 동향
- 타 시·도 동향

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

목 차

Ⅰ. 국정 동향 ····· 1

1 【해양수산부】 산업부·해수부, 목포·영암 조선 MAX 거점 육성 ····· 1

2 【행정안전부】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사업 10곳 선정...동구·담양군 포함 ··· 2

3 【국토교통부】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...연소득 7천만 원까지 확대 ·· 3

Ⅱ. 시정 동향 ····· 4

1 【가족정책국】 전남광주, 모든 산모에 160만 원 지원...산후조리 지원 확대 ·· 4

2 【농축산식품국】 전남광주, 19개국 바이어 초청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 개최 ··· 5

3 【기후환경본부】 전남광주, 산업단지 인근 주민 건강모니터링 추진 ····· 6

Ⅲ. 타 시·도 동향 ····· 7

1 【대 전 시】 대전청년의회 출범 임박...청년정책 참여기구 본격 가동 ··· 7

2 【부 산 시】 부산시,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까지 사용처 확대 ···· 8

3 【충 북 도】 충북도, 중소·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 강화 ····· 8

4 【경 기 도】 경기도, 글로벌 AI 허브 유치 추진...민관 지원단 출범 ····· 9

국 정 동 향

1 산업부·해수부, 목포·영암 조선 M.AX* 거점 육성

* 조선 M.AX : 조선 제조공정의 AI 전환

-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10월 12일 목포에서 「조선 M.AX 얼라이언스(협력체) 전략회의」를 개최하고, **기존 자율운항 선박 중심의 얼라이언스를 조선 제조공정 전반의 AI 전환**을 지원하는 「조선 M.AX 얼라이언스」로 확대·개편한다고 밝혔음.

- 정부는 대형조선소·중소조선·기자재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**2030년까지 1조 4천억 원+α 규모**의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며, **목포·영암**을 **거제·부산, 군산**과 함께 **핵심 거점**으로 **선정**함.

- **목포·영암**에는 **총 5,960억 원 규모**의 **민관 투자**를 통해 중·대조립 공정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**'AI 조선소 등대공장'을 구축**하고, 실증된 기술을 **대불산단 내 9개 협력사에 확산**할 계획임.

- HD현대삼호는 블록 생산공정의 AX 기술 개발과 실증을 주도하고, HD한국조선해양은 자율 물류·운영 시스템과 생산 최적화 등 지능형 야드 시스템을 구축해 공정 간 연계를 지원함.

- 정부는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1,600억 원 규모의 R&D와 360억 원 규모의 설비 보급을 지원하며, **HD현대삼호와 대아산업**은 **대불자유무역지역에** 4,000억 원을 투자해 **AI 자율운영조선소 등대공장을 구축**하기로 함.

- **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영암군은 정부사업 유치와 규제개선 등을 지원**하고, 향후 등대공장에서 검증된 **AI·자동화 기술을 지역 중소조선·기자재 기업으로 확산**해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서남권 조선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.

2 행안부,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사업 10곳 선정...동구·담양군 포함

* 주요내용 : (동 구) 장난감도서관, 실내놀이터, 긴급돌봄공간 조성
(담양군) 어린이 실내놀이시설, AI · 영상체험관 조성

-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·군·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「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」 심사 결과, 전남광주 동구·담양군 등 10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음.

-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별로 다른 임신·출산·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지방정부가 직접 진단하고,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기반시설을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됨.

- 선정 지역은 **전남광주 동구·담양군**을 비롯해 대구 남구, 대전 동구, 세종시, 충북 단양·영동군, 전북 고창군, 경북 경주시, 경남 밀양시 등 10곳이며, **지역별 최대 5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될 예정임.**

- 특히 기존의 정형화된 시설 조성 방식에서 벗어나 **통합돌봄거점, 임신·출산 서비스, 실내놀이·긴급돌봄 등** 지역이 **필요로 하는 시설을 직접 제안하도록 사업의 자율성을 확대**함.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필수 서비스 접근성과 영유아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의 기반시설을 함께 확충할 계획임.

3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…연 소득 7천만 원까지 확대

- **국토교통부는** 「주거안정플랜」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청약통장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**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의 소득기준을 기존 연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완화**할 계획임.

-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**19~34세 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**로,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**최대 4.5%의 우대금리를 제공**하고 **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 원의 40%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함.**

- 정부는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10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가입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이 청약통장 가입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.

- 이와 함께 디딤돌·버팀목 등 기금대출의 소득기준도 10월 중 완화하고, 2027년부터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도 완화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계획임.

-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층의 주택청약 가입 기회와 주거지원 혜택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.

<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>

구분	주요내용
소득기준	연 소득 5천만원 이하 → **연 소득 7천만원 이하**
가입대상	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청년세대(19세~34세)
우대이율	**최대 4.5%**(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.4%p 높은 금리)
소득공제	연 납입금액(최대 300만원)의 40% 소득공제
보러가기	주택도시기금 포털 : https://nhuf.molit.go.kr

시 정 동 향

1 전남광주, 모든 산모에 160만 원 지원...산후조리 지원 확대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**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**이 **2027년 하반기 국가사업으로 전환**됨에 따라, (가칭) **산모건강수당을 신설**하고 민선 9기 출산3무(無)* 공약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.

  * 출산3무(無) : 출산준비금, 분만비, 산후조리비 부담 완화

- 산모·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**옛 전남권의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**을 7개소에서 **10개소로 확대**하고, **이용료를 전액 무료화**할 예정임. **이용 대상**은 산후조리원 접근성이 취약한 옛 **전남 22개 시군에 거주한 산모**임.

-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**전남광주의 모든 산모에게는 2주 기준 160만 원의 산모건강수당을 지급**할 계획임. 지원 대상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**통합특별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**로, 산후조리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초점을 둠.

-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·군·구 협의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,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를 거쳐 **2027년 하반기부터 공공산후조리원 무료 이용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**할 예정임. 이와 함께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해 **지원 대상을 모든 산모로 확대**할 계획임.

- 한편 옛 전남에서 2025년부터 시범 운영한 출생기본소득은 정부의 아동기본수당 도입 결정에 따라 2027년 7월부터 국비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으로,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출생부터 산후조리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임.

2 전남광주, 19개국 바이어 초청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 개최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**10월 14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를 개최**하고, 지역 우수 농수산식품의 세계화와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임.

- 이번 상담회에는 미국·중국·일본·베트남·독일·프랑스·캐나다 등 **19개국 해외 바이어 45명**과 **지역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80개사 120명이 참여**할 예정임.

- 참가기업들은 김·전복 등 대표 수산식품을 비롯해 김치, 유자가공품, 차류, 전통장류, 과채음료, 쌀가공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, 해외 바이어와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신규 입점과 수출계약 기회를 모색함.

- 또한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, 바이어들이 상담회 전날 박람회장과 수산식품 홍보관을 둘러보며 지역 수산식품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함.

- **전남광주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올해 8월 기준 7억 5,687만 달러**로 전년 동기 대비 8.2%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, 시는 온라인 수출플랫폼, 국제식품박람회, 해외 판촉,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지속할 방침임.

3 전남광주, 산업단지 인근 주민 건강모니터링 추진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환경보건센터와 함께 **광산구 하남동·수완동 일대 산업단지 인근 주민을 대상**으로 **건강 모니터링을 추진**하고, 오는 15일까지 **참여 주민 100명을 모집할 예정임.**

-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 **인근에 장기간 거주한 주민의**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, **체내 중금속 및 화학물질 노출 수준을 파악해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**하기 위해 마련됨.

- 참여 대상은 해당 지역에 **5년 이상 거주한 주민**으로, 하남동 40명과 수완동 일대 60명 등 총 100명을 선정함. 검사는 전남대학교병원과 연계해 하남동은 11월 16~20일, 수완동은 11월 23~27일 진행할 예정임.

- 참여 주민에게는 건강검진과 함께 **중금속·화학물질 등 10종의 환경오염물질 검사를 무료로 지원**하며, 검사 결과는 개인별 우편으로 안내하고 전남대학교병원 전문의 상담을 통해 건강관리도 지원할 계획임.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건강상태와 유해물질 노출 수준을 분석하고, **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 건강관리 방안과 향후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**할 방침임.

타 시 도 동 향

1 대전청년의회 출범 임박...청년정책 참여기구 본격 가동

- **대전시**는 민선 9기 핵심 비전인 '청년특별시 대전'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**제1대 대전청년의회 구성에 약 600명이 지원**해 정원 100명 대비 약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음.

- 이번 청년의회는 동구·중구·서구·유성구·대덕구 등 **대전 전역의 청년이 참여**했으며, **다양한 성별과 배경을 고려**해 대표성을 확보할 계획임. 특히 **사회적 배려자도 37명이 지원**하는 등 폭넓은 참여가 이뤄짐.

- 대전시는 청년의회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**자치구별 청년인구 비율과 성별 등을 반영**한 무작위 층화 추첨* 방식으로 **100명의 청년의원을 선발**할 예정임.

  * 무작위 층화 추첨 : 몇 개의 기준으로 나눈 뒤, 각 그룹에서 무작위로 뽑는 방식

- **선발된 청년의원**은 생애주기에 따라 진로탐색·사회진입·경력형성·가족형성 등 4개 분과위원회에 소속돼 **청년정책 과제를 발굴·제안하고, 청년참여예산 심의 등 정책과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**하게 됨.

- 최종 선발 결과는 10월 22일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발표되며, 10월 29일 출범식 이후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임. 대전시는 청년들의 제안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회를 시정 참여의 실질적 창구로 운영할 방침임.

2 부산시,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까지 사용처 확대

- **부산시는**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**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사용처를 차량 연료비에서 전기요금까지 확대**한다고 밝혔음. 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함.

- 부산시는 **지난 9월 28일부터 부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역화폐 '동백전' 정책지원금으로 지급**하고 있으며, **앞으로 전기요금**과 휘발유·경유·LPG 등 **차량 연료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.**

-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와 한전은 동백전을 활용한 전기요금 결제 체계 구축과 운영, 가맹점 관리, 결제방법 안내,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대응 등 협력체계를 공식화함.

- **지원 대상**은 **부산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**이며, 신청은 11월 6일까지 동백전 앱을 통해 가능함.

- 부산시는 매월 발생하는 전기요금이 소상공인의 주요 고정비용인 만큼,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에너지바우처의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임.

3 충북도, 중소·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 강화

- **충청북도는** 도내 중소·중견기업의 정책금융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**11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'충청북도 중소·중견기업 정책금융 설명회'를 개최**할 예정임.

-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이 다양한 정책금융 제도를 한자리에서 확인하고, 기업의 성장단계와 자금 수요에 맞는 금융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해 마련됨.

- **산업은행·수출입은행·중소기업은행·기술보증기금·투자기관 등이 참여**해 **국민성장펀드, 수출·해외진출 금융지원, 중소기업 정책자금, 기술기업 보증·투자제도 등 기관별 주요 지원사업과 활용 방법을 안내**할 예정임.

- 아울러 투자기관은 벤처투자와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지분투자 지원방안 등을 소개하고, 기업별 정책금융 활용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진행해 기업의 투자·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할 계획임.

- 충북도는 설명회가 실질적인 금융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, 10월 12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있음. 참여 희망 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의 카카오톡 채널 '충청북도 비즈알리미'를 통해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음.

4 경기도, 글로벌 AI 허브 유치 추진...민관 지원단 출범

- **경기도**는 정부가 추진하는 **'글로벌 AI 허브' 유치에 대응**하기 위해 **민관 지원단을 출범**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음. 도는 지난 12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지원단 출범식을 열고 후보지 공모에 대비한 협력체계를 가동함.

- **글로벌 AI 허브**는 **국제기구와 다자개발은행, 기업·연구기관 등이 AI 연구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**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내 설립을 추진하는 **국제협력 거점**임.

- **지원단은**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장석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, 김선우 세종대학교 AI로봇학과 교수가 부단장으로 참여함. 향후 **허브 유치전략 자문**과 **대외 유치활동 지원 등을 수행할** 예정임.

- 경기도는 도 관련 실·국을 비롯해 **31개 시·군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도 운영**해 지역 내 AI·산업·연구 역량을 결집하고, **정부의 후보지 선정 절차에 공동 대응**할 계획임.

- **정부는 10월 14일 입지 선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**, 이후 **후보지 공모와 평가,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입지를 결정**할 예정임. 경기도는 공청회 결과와 정부의 입지 기준을 분석해 세부 유치 전략을 마련할 방침임.

- 경기도는 글로벌 AI 허브를 국제기구·기업·대학·연구기관이 협력하는 거점으로 보고, 도와 시·군, 공공기관, 기업·연구기관의 역량을 연계해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AI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.

- 경기도 외에 **전남광주통합특별시, 인천광역시, 부산광역시, 경상북도, 제주특별자치도, 충청남도 등도 유치 의사**를 밝히며, 정부의 후보지 공모를 앞두고 지자체 간 글로벌 AI 허브 **유치 경쟁이 본격화**되고 있음.